

정보보호 분야 직무체계 개발을 통한 정보보호 관리직의 직무역량 분석

김태성, 전효정

phdhyo@naver.com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박사과정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번지

043-276-3343, 010-4806-1598

키워드 : 정보보호 관리직, 직무체계, 직무역량

- Abstract -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20여년에 걸친 국가정보화 노력에 따라 2006년을 기해 초고속인터넷가입자 1,400만명, 인터넷이용자수 3천만명, 이동전화가입자수 4천만명이라는 양적인 성장을 이뤄내 명실상부한 IT인프라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수는 2005년을 기점으로 100명당 사용자수 67명을 기록함으로써 정보강국인 미국(63명) 및 일본(50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역설적으로 정보화의 성장 속에서가 아닌 정보화의 역기능 속에서 발견된다. 해킹 및 바이러스의 피해의 증가율은 둔화되었다 하더라도 꾸준히 정보화 촉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스팸메일 등이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사용자까지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게 정보보호는 기업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문제로서 기업의 존망을 좌우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보호 관리자'의 기능이 필요한데, 이의 직무는 기업의 정보보호정책 설정에서부터 정보시스템의 관리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 정보보호기업 종사자의 전공별 분포를 보면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 관련학과, 전자통신학과 및 관련학과 등의 '정보보호 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공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보보호인력의 직무 구성도 2006년 현재 정보보호연구 및 개발직과 정보보호 관리직이 각각 42%와 35%를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 능력을 중시하는 '정보보호 연구 및 개발직'에 비해 '정보보호 관리직'은 '기술'과 '경영'에 대한 지식 및 스킬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는 점과 정보보호의 구현은 기업의 업종별(금융업, 제조업, 공공기관)로 요구되는 범위 및 수준이 다르다는 전제아래, 정보보호시스템 관리를 주 직무로 하는 '정보보호 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핵심직무, 직무 수행시 요구되는 전문기술, 직무 수행을 위해 보유해야 할 필수 지식 및 능력 등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현재의 정보보호 관련 정규 교육기관, 국가 및 민간전문교육기관 등의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정보보호 관리 실무자 양성을 목표로 재설계해보고자 한다.